



3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고요한(왼쪽)과 박종우가 볼 다툼을 하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6일 아이티, 10일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우승도전이나, 강등탈출이나

K리그 강등제 도입따른 스플릿 라운드 돌입

‘우승 도전’과 ‘강등 탈출’을 위한 승부가 펼쳐진다.

K리그의 스플릿 라운드가 오는 7일 시작된다. 본격적인 스플릿 시스템 가동으로 그룹 A(1~7위), 그룹 B(9~14위)는 각각 우승과 강등을 놓고 27~40라운드를 접점을 벌이게 됐다.

스플릿 라운드는 강등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방식. 26라운드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나누어진 상·하위 그룹이 그룹별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12경기씩 더 치러 최종 순위를 가린다.

14승7무5패(승점 49)로 1위에 오른 포항을 필두로 울산(14승6무6패·48), 전북(14승6무6패·48), 서울(13승7무6패·승점 46), 수원(12승5무9패·41), 인천(11승8무7패·41), 부산(11승7무8패·40)이 그룹 A서 대결을 갖는다.

그룹 B에는 골 득실차(1)에서 밀려 부산에 7위 자리를 내준 성남(11승7무8패·40)과 함께 제주(10승9무7패·39), 전남(6승11무9패·29), 경남(4승10무12패·22), 대구(4승8무14패·20), 강원(2승9무15패·15), 대전(2승8무16패·14)이 자리했다.

그룹 A의 목표는 우승이다. 1위 팀은 K리그 클래식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된다. 또 3위까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진다.

그룹 B는 강등을 피하기 위한 승부다. 최종순위 13~14위의 팀은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야 한다. 12위 팀도 안심할 수 없다. 12위 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잔류를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그룹B의 마지막 40라운드는 11월30일에 진행되며, 12월1일에는 그룹 A의 마지막 3경기가 열린다.

기존 26라운드까지의 승점, 경고, 퇴장 현황, 개인 기록은 모두 연계된다.

그룹 B에서 스플릿 라운드를 치르게 된 전남은 7일 오후 7시 안방에서 경남과 첫 경기를 갖는다. 성남-대전, 제주-대구와 맞대결도 예정됐다. 그룹 A의 일정은 8일 전북-포항, 부산-서울, 울산-인천의 경기와 함께 시작된다. 수원과 강원은 스플릿 첫 경기에 오프팀으로 배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 가뭄’ 홍명보호, 아이티 골문 열 공격진 누가 이끌까

유럽과 합류로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홍명보호(號)가 최전방 공격진의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시험에 나섰다.

홍명보호 감독은 3일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이틀째 소집훈련을 지르면서 골키퍼 3명을 뺀 20명의 선수를 두 팀으로 나눠 훈련을 시키면서 조직력 끌어올리기에 집중했다.

선수들은 우선 자신의 위치가 표시된 그라운드 선 뒤 홍 감독이 지시하는 상대의 공격 방향에 따라 각자 지정된 위치를 이동하는 훈련을 치렀다.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의 선수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수비 위치를 잡는 게 목표였다.

이를 위해 홍 감독은 훈련에 앞서 그라운드 중앙에 작전판을 가져다 놓고 선수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지 설명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홍 감독은 측면에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고, 나머지 선수들이 수비에 들어간 선수의 빈자리를 커버하는 유기적 움직임을 강조했다. 간결한 플레이와 정확한 위치 파악이 핵심이었다.

지동원-이근호 VS 조동건-구자철

유럽과 합류 본격 전술훈련... 손흥민·고요한 좌우날개 조합

조직력 훈련에서 취재진의 시선을 끈 것은 단연 두 팀으로 나뉜 공격수의 조합이었다. 이는 사실상 홍 감독이 머릿속에 그린 ‘베스트 11’의 윤곽이기도 했다.

홍 감독은 먼저 지동원(선덜랜드)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놓고 이근호(상주)를 새도 스트라이커로 배치한 뒤 손흥민(레버쿠젠)과 고요한(서울)을 좌우 날개로 세운 조합을 가

동했다. 이어서 조동건(수원)과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을 각각 원톱과 새도 스트라이커로 놓고 좌우 날개로 윤일록(서울)-이청용(불턴)을 배치하는 조합을 꺼내 들었다.

두 조합 모두 득점의 핵심인 원톱과 새도 스트라이커를 ‘유럽과-국내파’ 조합으로 꾸리게 된다. 그동안 서로 발을 맞추지 못

한 국내파와 유럽파 공격수들의 호흡을 끌어올리려는 감독의 의도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동원과 이근호는 A매치에서 각각 8골(23경기)과 16골(52경기)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조동건은 두 차례 A매치에 득점이 없고, 구자철은 10골(30경기)을 잡았다. 결정력에서는 지동원-이근호 조합이 조동건-구자철 조합을 앞섰고 있다.

이들은 포지션 숙지 훈련과 패싱 게임 내내 같은 조를 이루며 조직력을 다졌다. 다만 왼쪽 날개 자원인 김보경(카디프시티)은 왼쪽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중원은 공격 조합과는 달리 대표팀의 주전을 맡아온 하대성(서울)-이병주(포항)와 박종우(부산)-한국영(소산) 조합으로 나뉘어 경쟁 체제를 이뤘다.

홍 감독은 공격진 구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소속팀 경기를 뛰고 오면 대표팀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잃게 마련인 만큼 조직력부터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대표팀은 6일 아이티(인전 축구 전용구장), 10일 크로아티아(전주 월드컵경기장)와 잇따라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가을이 아쉽기만한 나지완 그래도 당당한 4번타자



타점: 80점·3위 - 장타율: 0.494·5위
출루율: 0.401·8위 - 홈런: 17개·6위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간절함으로 끝나는 시즌. 나지완에게 하루하루가 아쉽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나지완에게 2013시즌은 4번 타자라는 이름을 얻은 최고의 해이자 우승이라는 기대가 실망으로 끝난 아쉬움 가득한 해이다.

나지완은 지난 주말 NC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100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경기장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와 함께 80타점도 채웠다. 역대 개인 최다 안타(109개·2012년) 경신을 앞두고 있고 타점은 이미 2009년 개인 최고기록(73점)을 넘어섰다. 20홈런에도 3개를 남겨뒀다.

20일 현재 타점(전체 3위)과 함께 장타율(0.494·전체 5위), 출루율(0.401·전체 8위)은 팀내 1위이고 홈런(17·전체 6위)은 이병호(19개)에 이어 2위다. 또 44승에서 10승을 책임지는 결승타도 때려내는 등 매서운 활약을 했다.

오라카라 타순의 변동이 심했던 올 시즌 4번 자리를 굳게 지키며 마침내 ‘4번 타자’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됐다.

나지완은 2008년 팀 역사상 처음으로 신인 4번 타자로 개막전에 나서는 영예를 안았지만 이내 자리에서 이탈해 2군에서 재출발을 해야 했다. 지난해에도 출발은 4번 타자였지만 4번은 주로 최희섭·이병호의 자리가 됐다.

역대 개인 최고 기록 불구

올 시즌 끝나면 군입대

우승하고 싶었는데...

팬들께 죄송



나지완은 “4번 타자는 자부심인 것 같다. 신인 때는 준비와 실력이 부족했다. 그때는 4번 타자가 내 자리가 아니었다. 올 시즌 안타, 타점 등 개인 기록은 만족스럽다. 앞으로 홈런 3개를 더해 20홈런은 넘기겠다”고 말했다.

개인 기록과 달리 팀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간절하게 원했던 우승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1985년생으로 나이가 딱 한 나지완은 군입대까지 미루며 올 시즌을 준비했다. FA를 앞둔 윤석민과 이영규, 김주환의 합류, V11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나지완은 2009년 가을처럼 정든 동료와 기쁨의 눈물을 쏟는 상상을 하며 치열한 겨울을 보냈다. 기대감으로 시즌을 출발했던 만큼 이번 가을은 쓸쓸하다. 여기에 이번 시즌이 끝나면 군 복무를 위해 잠시 그라운드와 이별을 고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더 무겁다. 하루하루, 한 타석 한 타석에 그래서 더욱 간절하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외야로 나가고 과감하게 주루플레이를 하는 것도 이 간절할 때문이다.

나지완은 “요즘 들어 더 그라운드가 간절해졌다. 당분간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다”며 “팀에서 중간 나이다. 중간에서 내 역할이 부족했나하는 생각도 들고, 기본 좋게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을 전설 쓰고 싶었던 ‘가을 사나이’가 아쉬움으로 가을을 맞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호포 추신수’ 7일 리턴매치 ‘13승투 류현진’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원수 투수 류현진의 등판 일정이 조정돼 추신수(신시내티 레즈)와 다시 ‘한국인 맞대결’을 벌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5일(이하 한국시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선발투수로 에딘손 볼케스를 등판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 경기는 원래 류현진이 선발로 내정돼 있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선발 요원으로 영입한 볼케스가 실전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한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의 일정을 늦췄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선발 등판일은 신시내티 레즈와 맞붙는 7일로 조정됐다.

지난 7월 2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첫 맞대결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추신수와 류현진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이번에는 무대가 신시내티의 홈구장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로 바뀌었다.

첫 맞대결에서 류현진은 추신수에게 불리한 개를 내줬으나 두 차례 땅볼과 삼진으로 유리해 관중성을 거뒀다. 그 경기에서 류현진은 9이닝을 9탈삼진 1실점으로 틀어막아

승리도 챙긴 기억이 있다. 당시 류현진에게 안타를 빼앗은 타자는 크리스 헤이스와 제이브루스 두 명뿐일 정도로 신시내티는 류현진에 철저히 맞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신수가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지 않다.

우선 최근의 타격 상승세가 무섭다. 추신수는 지난달 28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통산 100호 홈런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6경기째 안타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때린 홈런만 세 개에 달할 정도로 타격 감각이 절정에 달한 상태다.

추신수는 이날까지 홈런 19개와 도루 17개를 기록해 2010년 이후 3년 만의 20홈런-20도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호타준족의 상징인 20-20까지 다시 달성한다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하는 추신수의 몸값은 한층 뛰어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